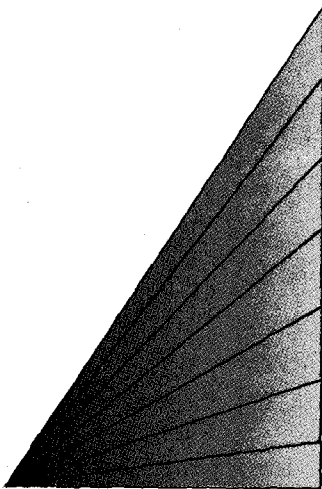


# 자기 확신이 서야 한다



최 인  
무진통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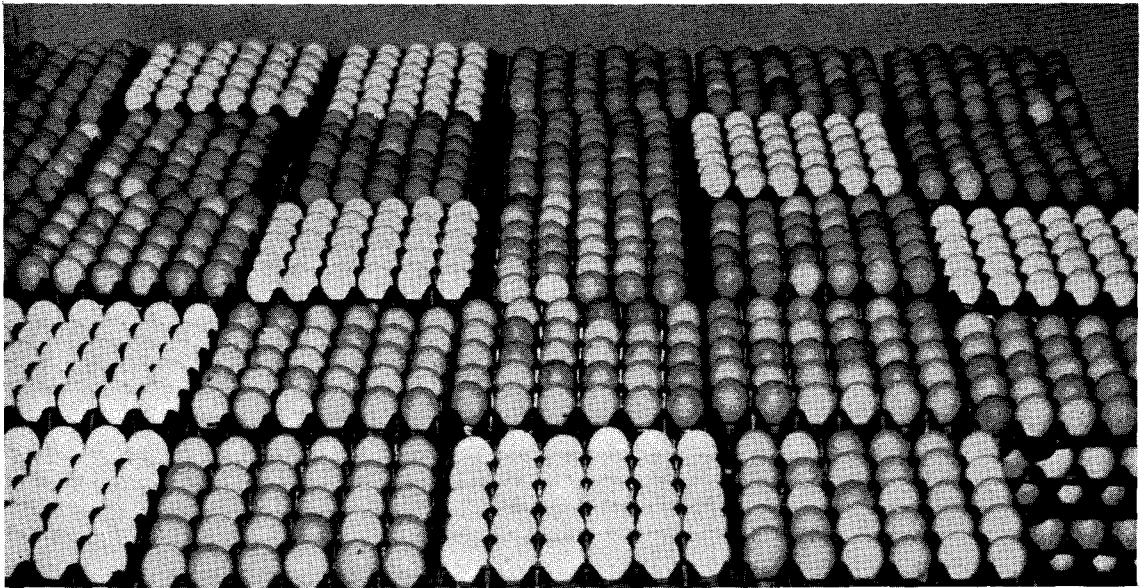
**금**년은 양계인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컸던 한해였지 않나 생각된다. 산지에서 육계가 격이 폭락하여 거리에까지 닭고기를 들고나가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지경이 있었는가 하면 계분으로 인하여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왔다.

이미 UR농산물협상으로 인하여 수입개방조치가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양계인들은 생산기반

의 취약성으로 상당한 기간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날로 가중되는 인력난과 환경공해로 계분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계사 시설자동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혹자는 양계산업을 쉽게 말하여 “조금만 노력하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단정해 버리는데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의 선



결조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양계인의 피나는 노력만 강요되는 듯한 감이 없지 않으며 많은 시간을 두고 농장을 다녀보면 그러한 기관들의 판단에 많은 착오가 있었다고 느껴진다.

사실 많은 양계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타 축종에 비해 세밀한 경영관리가 요구되므로 경영상에 있어 대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양계인 또한 시설자동화만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최상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데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많은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는 시설자동화가 그저 경영상의 잇점이 도외시된채 인력을 대체하거나 부산물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본다.

국제경쟁력이란 생산비를 수출국 수준으로 낮추든가, 획기적인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일단 수입산물과 대등해지거나 월등해지는 길이라고 본다.

계사를 새로 짓거나 시설자동화를 할 때 선결 조건은 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자기 능력에 적합한 경영 스타일을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설자동화가 자기 과시나 닭의 생리기전이 고려되지 않은 미관상의 장점만을 보고 선택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많은 양계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자기 판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허송

세월을 보내기도 하는데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보다 체계적인 자기 확신의 바탕 위에 냉정한 판단과 재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지난 10월 양계박람회를 통하여 양계인들이 양계업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실천하였다. 수입개방이 된다 하여도 위축은 커녕 수출까지 하고자 하는 양계인도 많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이 같은 마음의 자세를 굳게 지키고 경영자가 편리한 시설자동화보다 닭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시설자동화를 이행해 나가는 길이 수입개방을 대처하는 필수요건이라 본다. **양계**